

- 주요 뉴스: 유로존 6월 CPI(예비치), 예상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
 - 미국 6월 제조업 PMI,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며 2년래 최저치
 -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, 7월 75bp 금리 인상 지지
 - Fitch, 세계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의견 '중립'으로 하향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부진에도 주가 반등, 달러 강세

주가 상승[1.06%], 달러화 강세[0.4%], 금리 하락[-13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심화 불구 큰 변동성 속 반등
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유로존 6월 CPI 영향으로 소폭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6월 제조업 PMI 부진 속 미 경제의 상대적 우위로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7% 하락, 엔화가치는 0.4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며 하락
독일도 예상 상회한 인플레이션 불구 경기침체 우려로 10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8.7원, +1.9원) 0.1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7/1일	6/30일	전일대비			7/1일	6/3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25.3	3,785.4	1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8%	3.01%	-13bp
	유럽	407.13	407.20	-0.02%		독일	1.23%	1.34%	-10bp
	중국	3,387.6	3,398.6	-0.32%	CDS 5y	한국	53bp	54bp	-1bp
	일본	25,936	26,393	-1.73%		중국	84bp	86bp	-2bp
	한국	2,305.4	2,332.6	-1.17%	위험 지표	EMBI+	458.48	461.17	-0.58%
환율	달러지수	105.14	104.70	0.43%		VIX	26.70	28.71	-7.00%
	유로화	1.0414	1.0484	-0.67%		WTI유	108.43	105.76	2.52%
	엔화	135.21	135.72	0.38%	원자재	구리	361.90	371.5	-2.57%
	위안화	6.7015	6.6993	-0.03%		금	1,811.4	1,807.3	0.23%
	원화	1,297.3	1,298.8	0.1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유로존 6월 CPI(예비치), 예상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

- CPI(예비치)는 전년 동월 대비 8.6%로 전월 확정치(8.1%)와 시장 예상치(8.4%)를 모두 상회.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인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1.9% 급등. 다만 근원 CPI는 3.7%로 전월(3.8%)과 시장 예상치(3.9%)를 하회
- 국가별로 독일·이탈리아·스페인에서는 8~10%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20% 가까이 상승
- 6월 CPI 발표 직후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.4%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하며 1.2%선으로 후퇴
- Capital Economics는 6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본적인 물가 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말까지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. Commerzbank는 연말 인플레이션을 7.5%로 예상
- Moody's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'22년 전망치인 6.8%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ECB의 7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논의 재개 가능성을 지적. 독일 KfW는 임금과 물가의 연쇄 상승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ECB의 긴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제조업 PMI,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며 2년래 최저치

- ISM의 6월 제조업 PMI는 53.0으로 5월(56.1)과 예상치(54.3)를 하회. S&P Global의 PMI도 52.7로 전월(57.0)을 하회했으나 예상치(52.4)는 상회.
- S&P Global은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,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의 자본지출도 축소되었다고 분석

■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, 7월 75bp 금리 인상 지지

-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, 7월 75bp 인상을 단행하고 이후 연말까지 중립금리 수준인 3.1%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

■ Fitch, 세계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의견 '중립'으로 하향

-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각국 채무불이행 가능성 확대 등이 배경이며,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채권은 위험하다고 평가
-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이나 감세정책을 쓰고 있는데, 금리인상이 이에 따른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

■ 애틀란타 연은, 미국 2분기 성장률 전망치 -2.1%로 추정

-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분석모델 'GDP 나우'는 7.1일 발표된 ISM 제조업 PMI와 5월 건설지출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, 이 추정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
■ EU, 리투아니아를 경유하는 러시아 역외영토 화물운송 제한 철회

- EU 집행위는 수일 내에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로 보내는 화물의 운송 제한을 풀기로 결정
- 이번 조치로 발트해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이번 결정을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

■ 러시아, 7월 중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잠정 폐쇄 발표

- 운영사인 노르트 스트림 AG는 7.11~21일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2개 라인의 가동을 정기 점검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

■ BoA, 뉴욕증시의 '리세션 쇼크(Recession Shock)' 시작

- Michael Hartnet 수석 전략가는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는 정점에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다며, BoA의 강세 및 약세 지표 (bull and bear indicator)가 3주 연속 최고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내용(7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건설지출(mom) : -0.1%, 전월(0.8%), 예상(0.4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b@kcif.or.kr